

성삼 후 21주일(연중 30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40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같
이 사랑하게 하소서.

1독서 레위 19:1-2, 15-18 말 은 이
성 시 시편 1편 다 함 께



-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으며
○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사-람
- 2 주께서 주신 법을 닦으리 삼아
○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니
○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맺으리
-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 5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니,
○ 의인의 길은 주께서 |보살피신다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1데살 2:1-8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태 22:34-46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504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65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63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29일)	다음 주일(11월 5일)
1독서	이숙영	최서은
2독서	홍종분	최자연
대 도	권순호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묵시 7:9-17 시편 34 1요한 3:1-3 마태 5:1-12	
성 가	269 654 338 597	
복 사	허재원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3조> 권순호 황선숙 김운권 홍양금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0월 29일 성삼 후 21주일(연중 30주일) · 가해 · 녹색

제27-44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 시작되는 사랑의 송가에서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 읽으며 묵상하면 우리 신
앙의 현실 수준이 드러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아
선택하는 좋고 싫음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께서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여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의 차원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본래 바울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느님의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던 바리사이였습니다. 바울로의 회심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쳐 실패한 탓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강요되어 겉으로 지키
는 율법은 외면적인 행위는 통제할지 몰라도, 내면의
동기를 변화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자체의 결함이나 인간의지의 나약
함 때문은 아닙니다. 율법이 애당초 서로 사랑하기
위한 약속임을 잊고, 인간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대상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강조하는 율법준수는 자칫 하느님조차도
대상화합니다. 이웃의 존재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상화합니다.

바울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을 만나며 율법의 참된 의미와 사랑의 본질에 눈뜹
니다. 사랑은 타자를 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타자
앞에 ‘나’를 상대로서 세우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이
웃은 “율법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
께할 상대”입니다. 사랑은 상대와 올바른 관계를 맺
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
에서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좁은 자아를 포기할 때,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드러납니
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
명은 이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
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 그
리고 서로의 관계에 정직하고 지혜로우라는 요청입니
다. 하느님 안에서 나와 너가 깊이 만나는 차원이 참
사랑이요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
을 완성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